

5·18 유공자의 안타까운 죽음

시민군 체포·고문→청력 상실→우울증·알코올 중독 입원→탈출하려다 추락사

어제 낮 광주 모 병원에서 유족들 "병원 과실" 주장

추석 명절을 사흘 앞둔 11일 낮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모 종합병원 장례식장.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28년동안 각종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고 고 최석준(47·사진·광주시 남구 백운동)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었다. 가족들과 5·18부상자 회원 10여명만이 쓸쓸한 최씨의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11일 광주시 광산구 모 종합병원에 처해진 고 최석준씨의 빈소. 고인의 조카가 홀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최씨는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고문후유증으로 28년을 고통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당시 최씨는 광주 K고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학창시절 글솜씨와 필체가 훌륭하며 교사들의 칭찬을 자주 들었던 그의 인생은 5·18로 인해 송두리채 뒤바뀌었다. 10대를 막 벗어난 청년 최씨는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을 보고 시민군에 참여했다. 5·18이 끝난 이후 체포된 그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고, 오른쪽 청력을 거의 상실했다.

했지만 오월의 악몽은 최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급기야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고, 10여년 전부터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돈을 벌기 위해 일용직 노동도 했지만 최씨의 몸상태는 육체적 근로를 견디지 못했다. 어머니(72) 등 가족들이 식당일 등을 전전하며 치료비를 냈지만 그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지난 7월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한 최씨는 동료 환자들과 친하게 지내며 재생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최근 누나와 통화를 하면서 "치료를 받더라도 나가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싶다. 추석인데 가족들에게 보답하기도 못하고 미안하다"며 퇴원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씨의 소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 1층 계단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는 출입이 제한된 병원 7층 알코올 병동에서 나가기 위해 간호사실 서랍에서 결박용 끈을 가져와 이를 이은 뒤 6층으로 내려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인데..." 보이스 피싱 역대 사기

광주 70대 피해... 노인 상대 변종 수법 주의

광주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역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 금융사기) 사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도서·산간지역 노인들을 상대로하거나 변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노인 상대 전화금융사기=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홀로 사는 L(여·73)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한 남성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데, 할머니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으니 빨리 다른 계좌번호로 바꾸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날 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임동 농협을 비롯한 동구 금남로 등 10곳의 은행을 돌며 송금한 금액은 1억700만원. 범인들은 전화를 통해 은행을 옮겨 소액으로 분산해 입금할 것을 L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L씨의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건 점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당일 현금이 모두 인출된 점 등을 토대로 중국에 근거

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하고 있다.

◇피해건수 및 수법 진화·다양화=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15건. 피해액은 24억4천만원에 이른다. 이중 경찰은 60.4%인 130건의 사건을 해결해 32명을 구속했다.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은 금감원·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 사칭과 자녀 납치 방자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KT와 우체국 택배직원을 사칭하거나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변종수법이 등장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를 막아주겠다는 진화된 수법까지 등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

북구의장 '뒷돈 선거' 5명 소환

양도세 체납 의혹 김재균 의원은 무혐의

광주 북구의회 의장 '뒷돈 선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 체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던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4·9총선 후보등록 과정에서 김 의원이 체납한 양도세를 재산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의 진정이 들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그러나 "진정내용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차장검사는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이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이 맞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까지여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북구의회 의장 '뒷돈 선거'와 관련, 구의회 의원 등 관련자 5명을 소환했으며 선거일을 전후로 한 통화내용 등을 확인해 당시 상황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특히 돈을 받은 김 의원의 부인 J(55)씨가 의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국회의원 남편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할 이 너무 상당한 수사를 벌인 것

공금 15억 횡령 교장 등 4명 징역형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두 사학법인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각각 기소된 학교법인 H학원 산하 D여교 교장 이모(47)씨와 S교 교장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2~2005년까지 학생들이 구입한 각종 보충·자습 학습 교재를 학원 측이 교비(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 부담의 특기적성 교육비로 구입해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한 것처럼 결산처리해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오모(61)씨와 현 행정실장 김모(51)씨 등에 대해서도 횡령 등의 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전교조의 항고에 따라 재수사 끝에 이 사장을 제외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무심코 탄 가로수 은행 절도죄로

올해도 어김없이 가로수의 은행을 따던 시민들이 절도죄로 입건됐다. 많은 시민이 무심코 은행을 따고 있지만 은행나무는 각 지자체 재산으로 열매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광주북부경찰은 11일 가로수인 은행나무에서 열매를 따던 김모(71)씨 등 노인 4명을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일 새벽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도로 은행나무에서 나무막대를 이용해 은행 3kg(시가 3만원 상당)을 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은행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열매를 따고 싶어서"라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노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구형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수 열매를 따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 시내 가로수는 올해 초를 기준으로 11만 778그루며, 이중 은행나무는 3만9천558그루로 전체 가로수의 35%를 차지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602)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 337-0571

차에 혼자 있는 여성 보고 '못된 짓'

◇광주광산경찰은 11일 술을 마시고 차안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지갑까지 훔친 C(27·광주시 북구)씨에 대해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 세워진 A(여·25)씨의 마타즈 차문을 열고 들어가 술을 마시고 쉬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C씨는 길을 가던 중 차에 혼자 누워있던 A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훔쳐간 신용카드를 한 편의점에서 사용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걸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하려던 C씨에게 "얼굴은 착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설득하는 등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큰 화를 모면했다고 설명. /김필상기자 kps@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과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유·초·중·고·대 입학시험

관심없는 공부엔 당비일 뿐입니다!

관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대모집!

관내영교육학 현재 상담 접수중

개강 9월 5일

관내영고시학원

수강문의 529-0090

http://www.naeyoung.com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 중등 2차 시험대비반 및 3차 심층편입반 개설예정

유·초·중등 임용고시의 모든것!

새롭게 개편된 3단계 시험제도 - 적응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교원임용 무료설명회

매주(화,금) 11시, 3시, 7시(임용가이드제공)

- 처음시작에서 최종합격까지 전문상담을 통한 합격 프로그램 제시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관내영고시학원은 교원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관내영교육학

에듀넷

www.edunet.net

021816-1646